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최효미*

◆ 실물경제활동 급격한 둔화

- 2003년 4월의 경제활동은 내수 위축으로 생산둔화 및 재고 심화(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섬유·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내수 출하는 1.4% 감소한 반면, 수출 출하는 6.7% 증가
 -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1.5%포인트 감소한 76.6%로 전월에 비해서도 0.3%포인트 감소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허가면적,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하여 전월보다 0.6% 하락(표 2 참조)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에 99.1(2000=100 기준)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도소매 건설기성액, 도소매 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5% 하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2000=100)

	2002					2003			
	2월	3월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생 산	-0.8	7.1	10.6	7.2	9.5	3.5	10.2	5.0	1.8
제 조 업	-1.1	7.3	10.8	6.9	9.7	3.1	10.1	4.6	1.6
서 비 스 업	7.4	10.0	11.8	5.8	6.1	3.7	1.4	-0.2	-0.5
출 하	1.2	7.6	10.7	7.1	9.3	3.4	7.8	3.3	1.2
재 고	-6.7	-8.4	-7.1	-1.1	0.3	2.1	7.8	11.0	11.5
평 균 가 동 률	76.4	78.0	78.1	77.1	77.0	77.5	77.9	76.9	76.6

주: p는 잠정치임.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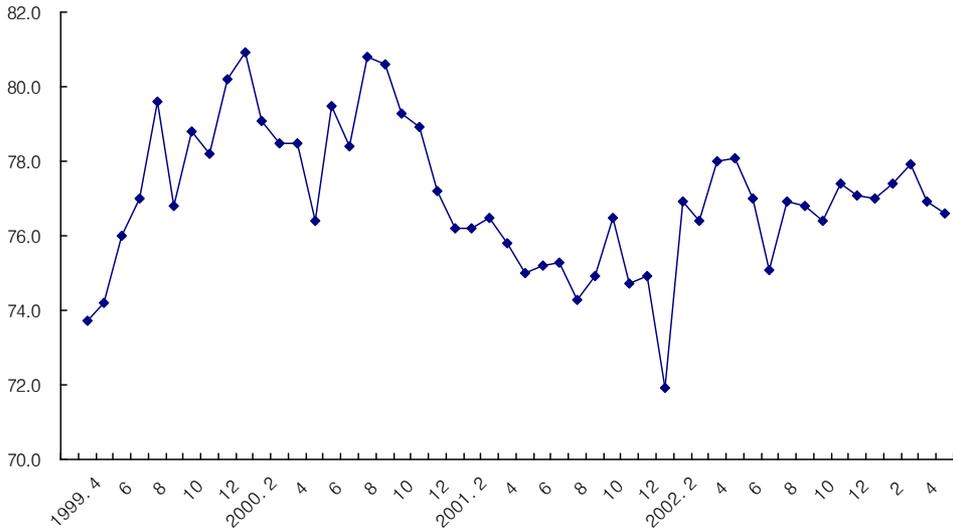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통계청, 『2002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03. 5.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전월대비 %, 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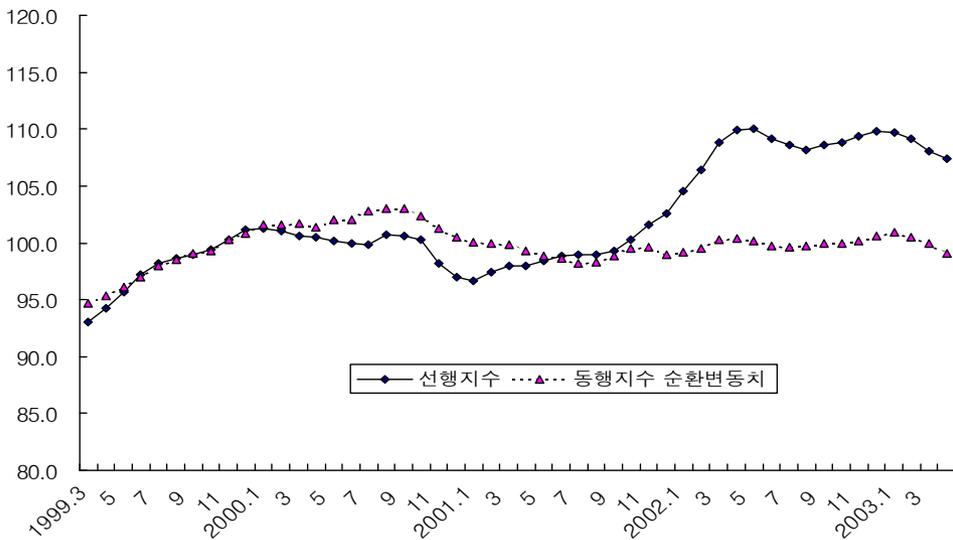
	2002			200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선행종합지수	0.2	0.6	0.4	-0.1	-0.5	-0.9	-0.6
동행종합지수	0.5	0.5	0.8	0.8	0.0	-0.1	-0.5
후행종합지수	0.1	0.1	0.2	1.1	0.6	1.0	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0	100.2	100.6	100.9	100.5	100.0	99.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3년 4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5.

[그림 2] 경기종합지수

(단위 :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세 주춤

- 2003년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연간 3.9%로 전망되었던 물가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표 3 참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개인서비스와 집세 등은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과 채소류 등의 출하증가로 전월대비 0.2% 하락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전월대비 0.5% 하락
- 5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2.8%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4% 하락하여 내림세가 지속됨.
 -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 물가가 하락하여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02					2003				
	2월	3월	4월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0.5)	2.3 (0.6)	2.5 (0.6)	3.0 (0.4)	3.7 (0.5)	3.8 (0.6)	3.9 (0.6)	4.5 (1.2)	3.7 (-0.2)	3.2 (-0.2)
생활물가 상승률	2.4 (0.5)	2.0 (0.8)	2.2 (0.7)	3.1 (0.6)	3.7 (0.6)	4.0 (0.8)	4.2 (0.7)	5.5 (2.1)	4.3 (-0.5)	3.1 (-0.5)
생산자물가 상승률	-0.2 (0.6)	0.0 (0.6)	0.7 (1.0)	1.5 (0.7)	4.6 (0.1)	5.1 (1.0)	5.2 (0.6)	5.8 (1.2)	3.9 (-0.8)	2.8 (-0.4)

주: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안의 수치는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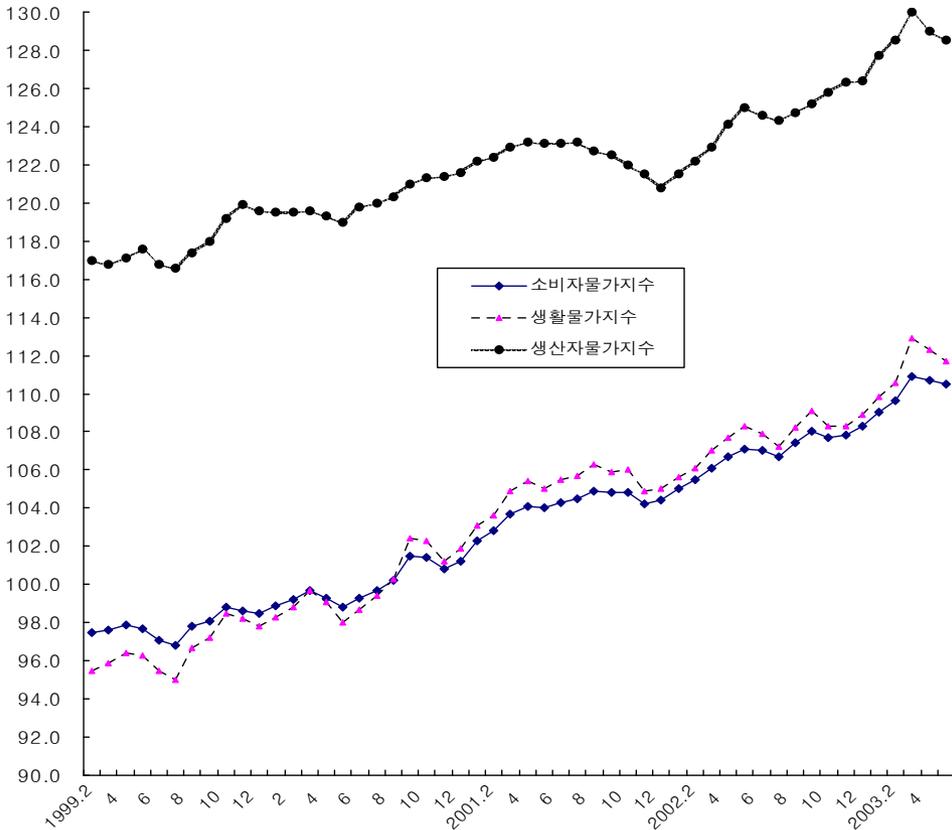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3년 5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6.

통계청, 『2003년 5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5.

1) 한국은행, 「향후 경제전망」 참조.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 1995=100)



주: 소비자물가, 생활물가는 2000=100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는 1995=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 무역수지 흑자 유지

- 2003년 5월 중 수출은 147.9억달러, 수입은 135.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2.7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유지(표 4 참조)
 - 2003년 5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47.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2003년 5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35.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3월	4월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 상 수 지	969.1	-89.9	961.5	-646.0	-417.2	-110.6	-1,193.5	-386.4	-
수 출 액 ¹⁾	13,251 (-6.2)	13,185 (8.8)	14,173 (6.5)	15,026 (26.1)	14,326 (25.9)	13,349 (21.1)	15,402 (16.2)	15,775 (19.6)	14,794 (4.4)
수 입 액 ¹⁾	11,990 (-7.4)	12,560 (12.0)	12,698 (9.9)	14,452 (27.9)	14,477 (27.8)	13,843 (32.2)	15,898 (32.6)	14,832 (18.1)	13,527 (6.5)
평 균 환 율	1,322.5	1,318.9	1,266.1	1,208.9	1,179.3	1,191.2	1,232.4	1,232.8	-

주 :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년 5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6.

한국은행, 『2003년 4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5.

_____,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노동시장

최효미·강승복*

◆ 전년동월대비 고용사정 악화 지속

- 2003년 5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55천명 증가한 744천명(실업률 3.2%)을 기록(표 1 참조)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85천명) 감소한 22,370천명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23,11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4,187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 62.7%에 비해 0.7%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12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214천명 증가
 - 5월 중 실업률의 하락 및 실업자수의 감소는 농번기를 맞은 농림어업 부문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증가에 기인
 - 연령계층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월대비 실업자수 감소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3,035(2.2)	23,144(1.8)	22,352(0.7)	22,320(0.3)	22,644(0.3)	22,912(-0.5)	23,114(-0.1)
참가율	62.4	62.7	60.1	60.0	60.8	61.5	62.0
취업자	22,301(3.0)	22,455(2.4)	21,562(1.0)	21,498(0.4)	21,837(0.3)	22,156(-0.7)	22,370(-0.4)
실업자	734	689	789	822	807	756	744
실업률	3.2	3.0	3.5	3.7	3.6	3.3	3.2
비경제활동인구	13,853(-0.8)	13,773(-0.2)	14,809(1.4)	14,873(2.1)	14,582(2.1)	14,350(3.6)	14,187(3.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 증가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모든 연령에서 전월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표 2, 그림 1 참조)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40~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다소 감소
 -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는 20~29세에서는 42천명 증가하는 등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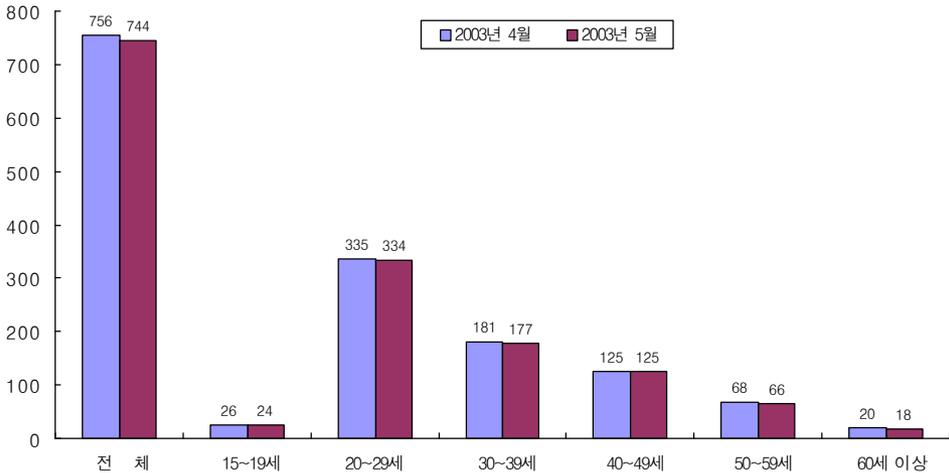
	2002. 5	2003. 4	2003. 5	2003. 5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전체	689(3.0)	756(3.3)	744(3.2)	-12	55
15~19세	32(9.3)	26(9.5)	24(9.0)	-2	-8
20~29세	292(6.0)	335(7.2)	334(7.1)	-1	42
30~39세	176(2.7)	181(2.8)	177(2.8)	-4	1
40~49세	110(1.8)	125(2.0)	125(2.0)	0	15
50~59세	58(1.8)	68(2.1)	66(2.0)	-2	8
60세 이상	22(0.9)	20(0.9)	18(0.8)	-2	-4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 2003년 5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명 증가(표 3 참조)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상승
 - 다만, 전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도 3천명 감소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5	2003. 4	2003. 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인원	증감인원
전체	689(3.0)	756(3.3)	744(3.2)	-12	55
중졸 이하	144(2.1)	112(1.8)	105(1.7)	-7	-39
고졸	334(3.3)	380(3.9)	377(3.8)	-3	43
대졸 이상	211(3.4)	264(3.8)	261(3.7)	-3	50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85천명(-0.4%) 감소한 22,370천명(표 4 참조)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7천명)과 농림어업(-128천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9천명)과 건설업(56천명) 등에서는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204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96천명이 감소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성별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13,106천명으로 80천명(0.6%)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165천명(-1.7%) 감소한 9,264천명
 - 2003년 5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51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237천명(1.7%)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319천명 감소(부표 19 참조)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214천명(1.0%) 증가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84천명(1.4%), 농림어업에서 78천명(3.89%) 증가하는 등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5	2003. 4	2003. 5	전월대비	
				증감인원	증감률
전 산업	22,455	22,156	22,370	214	-85(-0.4)
농림어업	2,285	2,076	2,154	78	-128(-5.6)
광업	19	17	16	-1	-3(-15.8)
제조업	4,269	4,209	4,252	14	-17(-0.4)
건설업	1,796	1,844	1,852	8	56(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82	5,817	5,845	28	-137(-2.3)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60	5,985	6,069	84	109(1.8)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47	2,179	2,183	4	36(1.7)

주: ()안의 수치는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 전년동월대비 신규실업자 증가세 둔화

- 2003년 5월의 실업자를 구직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천명

(7.9%) 증가한 577천명, 1년 이상 실업자는 1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1.8%) 증가함(표 5 참조).

- 신규실업자는 53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0천명(23.3%)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54천명 증가를 보인 지난 2월 이후 증가세는 둔화 추세
- 전월에 비해서 신규실업자는 18천명(-25.4%) 감소, 전직실업자는 6천명(0.9%) 증가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2. 5	2003. 4	2003. 5
신규실업자	43	71	53
전직실업자	647	685	691
1년 이상	112	126	114
1년 미만	535	559	577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2003. 6.

◆ 2003년 5월 근로시간은 다소 증가

- 2003년 5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 정도 증가, 전월대비 0.2% 증가(표 6 참조)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의 근로시간은 각각 1.2%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0.6%, 0.5% 감소
 - 반면, 전월대비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2%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각각 0.2%와 1.7% 증가

<표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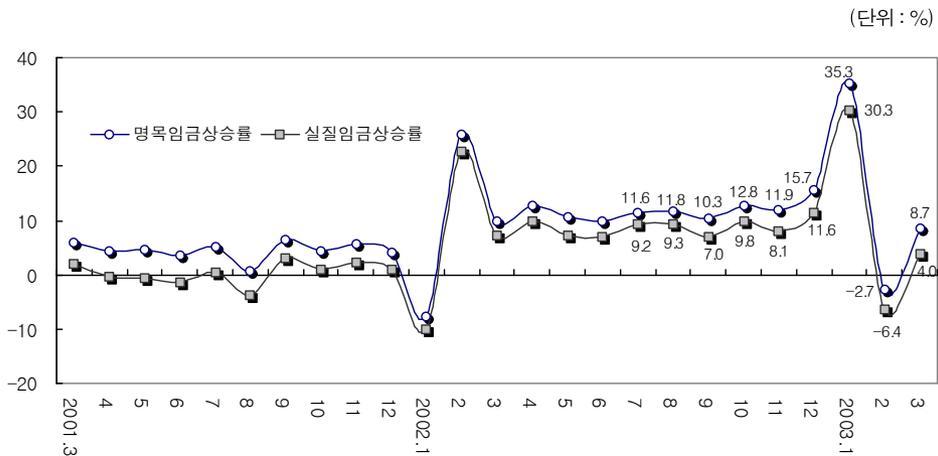
	2002. 5	2003. 4	2003. 5
전 체	49.1	49.3	49.4
상용직	50.0	50.7	50.6
임시직	50.9	50.5	50.6
일용직	43.0	42.1	4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03년 3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둔화

- 2003년 3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962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7%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9.8%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049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상승
 - 3월까지 누계평균(1/4분기) 임금총액은 2,10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상승
 - 2003년 3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급여 상승률의 둔화, 초과급여 상승세 지속 등으로 요약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
 - 2003년 3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9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0%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상승률 7.3%보다 3.3%포인트 낮은 것임.
 - 제조업부문 실질임금은 1,630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5% 상승
 - 3월까지 누계평균(1/4분기) 실질임금은 1,91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상승

[그림 2] 임금상승률 추이



<표 7>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2001. 3		2002. 3		2003. 3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임금총액	1,645 (6.0)	1,703 (6.5)	1,805 (9.8)	1,876 (10.2)	1,962 (8.7)	2,049 (9.2)
정액급여	1,234 (7.6)	1,250 (8.0)	1,388 (12.5)	1,413 (13.1)	1,514 (9.1)	1,550 (9.7)
초과급여	129 (1.9)	147 (3.7)	124 (-4.4)	141 (-3.8)	131 (6.3)	148 (5.1)
특별급여	282 (1.3)	306 (1.8)	294 (4.3)	322 (5.2)	317 (7.8)	351 (9.1)
실질임금	1,586 (1.9)	1,642 (2.4)	1,701 (7.3)	1,768 (7.7)	1,769 (4.0)	1,848 (4.5)
소비자물가	103.7 (4.0)		106.1 (2.3)		110.9 (4.5)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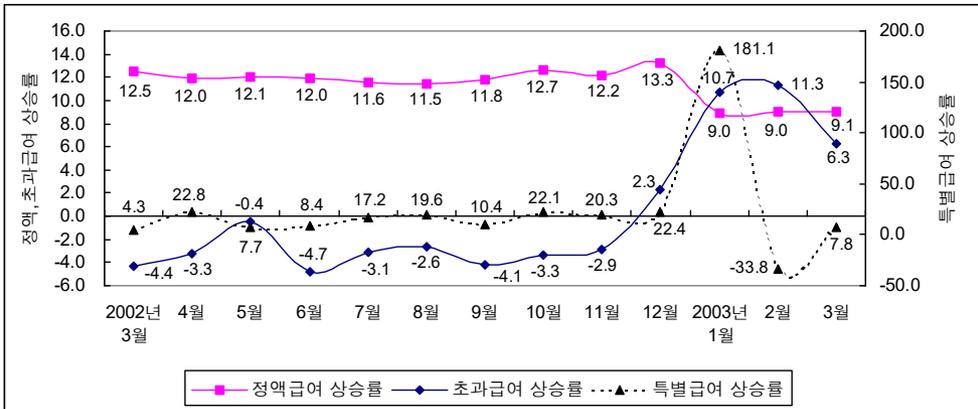
◆ 전월에 이어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초과급여 상승 지속, 특별급여 소폭 상승

- 2003년 3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14천원으로 전년동월(1,388천원)에 비해 9.1%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5%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정액임금 상승률은 올 들어 한 자리수를 유지
- 초과급여 상승률은 6.3%로 전년의 -4.4%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상승폭은 1월과 2월에 비해 둔화
-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12.5%), 운수창고 및 통신업(17.9%) 등의 높은 상승에 기인
- 3월까지 누계평균(1/4분기)으로는 정액급여 9.0%, 초과급여 9.3%, 특별급여 28.5%의 상승률 기록

[그림 3]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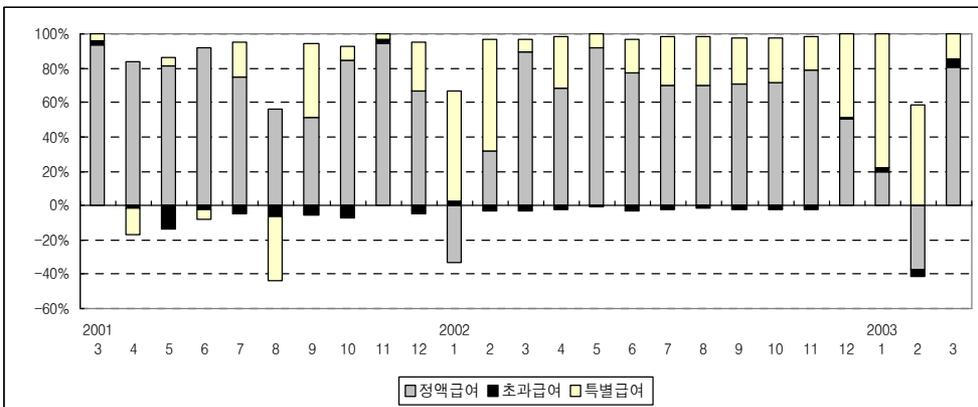
(단위 : %)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3월 임금총액 상승률 8.7%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80.3%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5.0%,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14.7%를 기록

[그림 4] 임금총액 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 추이



주: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당월통계 자료를 사용.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1)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Delta TWG}{TWG} = \frac{\Delta RWG}{RWG} \frac{RWG}{TWG} + \frac{\Delta OWG}{OWG} \frac{OWG}{TWG} + \frac{\Delta SWG}{SWG} \frac{SWG}{TWG}$$

◆ 2003년 3월 시간당 임금은 9.3% 상승

- 2003년 3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9,352원, 8,079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9.3%, 9.1%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3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에 따라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3월까지 누계평균(1/4분기)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10,272원, 9,134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11.4% 상승

<표 8>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 원, %)

		2001. 3	2002. 3	2003. 3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645 (6.0)	1,805 (9.8)	1,962 (8.7)
	시간당 임금(원)	7,478 (8.8)	8,557 (14.4)	9,352 (9.3)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488 (8.6)	1,655 (11.2)	1,808 (9.2)
	시간당 임금(원)	6,394 (11.6)	7,404 (15.8)	8,079 (9.1)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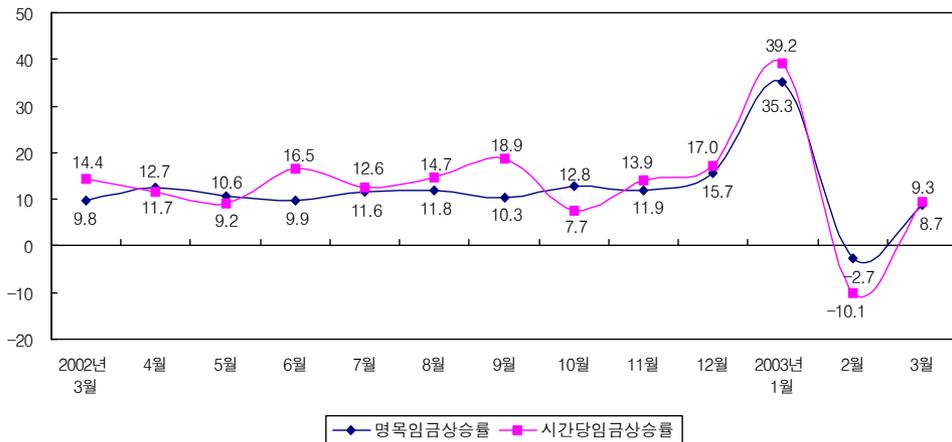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5]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최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둔화 뚜렷

- 숙박 및 음식점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 관련 산업의 임금상승률 저조
 - 2003년 3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1.9% 및 10.7%로 전산업 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반면 전반적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은 각각 4.7%, 5.4%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최근의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를 반영

<표 9>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1. 3		2002. 3		2003. 3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업	1,645 (6.0)	1,703 (6.5)	1,805 (9.8)	1,876 (10.2)	1,962 (8.7)	2,049 (9.2)
제조업	1,488 (8.6)	1,520 (9.1)	1,655 (11.2)	1,693 (11.4)	1,808 (9.2)	1,851 (9.3)
건설업	1,646 (-3.8)	1,791 (-4.0)	1,743 (5.8)	1,916 (6.9)	1,918 (10.1)	2,127 (11.0)
도매 및 소매업	1,657 (16.7)	1,751 (21.8)	1,810 (9.3)	1,917 (9.5)	1,960 (8.3)	2,082 (8.6)
숙박 및 음식점업	1,094 (-0.1)	1,212 (-2.9)	1,253 (14.5)	1,353 (11.6)	1,312 (4.7)	1,419 (4.8)
운수창고통신업	1,585 (3.2)	1,597 (2.9)	1,682 (6.1)	1,693 (6.0)	1,882 (11.9)	1,903 (12.4)
금융 및 보험업	2,486 (0.3)	2,525 (-0.9)	2,850 (14.6)	2,946 (16.7)	3,155 (10.7)	3,237 (9.9)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617 (13.7)	1,677 (14.7)	1,716 (6.2)	1,783 (6.3)	1,831 (6.7)	1,894 (6.3)
사회개인서비스업	1,791 (2.7)	1,922 (3.1)	1,945 (8.6)	2,084 (8.5)	2,051 (5.4)	2,256 (8.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5~9인 사업체의 1.8배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11.8%로 가장 높고, 5~9인 규모는 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5.6 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를 보임.

<표 10>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

	2001. 3		2002. 3		2003. 3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규모	1,645 (6.0)	81.3	1,805 (9.8)	75.1	1,962 (8.7)	73.0
5 ~ 9인	1,314 (6.7)	65.0	1,418 (7.9)	59.0	1,455 (2.6)	54.1
10 ~29인	1,543 (5.2)	76.3	1,646 (6.7)	68.5	1,748 (6.2)	65.0
30 ~99인	1,616 (7.4)	79.9	1,755 (8.6)	73.0	1,884 (7.3)	70.1
100~299인	1,663 (7.7)	82.2	1,849 (11.1)	76.9	2,027 (9.7)	75.4
300~499인	2,006 (9.7)	99.2	2,069 (3.1)	86.0	2,161 (4.5)	80.4
500인 이상	2,023 (6.6)	100.0	2,405 (18.9)	100.0	2,689 (11.8)	100.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성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

- 2003년 3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9.7%를 기록하여 여성의 5.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2로 전년동월(64.6)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11> 성별 임금상승률

(단위 : 천원, %)

	2001. 3		2002. 3		2003. 3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체	1,645	6.0	1,805	9.8	1,962	8.7
남 성	1,854 (100.0)	6.5	2,024 (100.0)	9.1	2,220 (100.0)	9.7
여 성	1,181 (63.7)	5.4	1,307 (64.6)	10.7	1,381 (62.2)	5.7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

3) ()안은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3년 3월 순입직자수 전월보다 감소

- 전월에 비해 입직자수와 이직자수 모두 대폭 증가

- 2003년 3월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입직자수(신규채용자수+전입자수)는 212천명, 이직자수(퇴직해고자수+전출자수)는 207천명으로 나타나 5천명의 입직자수 초과를 나타냄.
- 전월인 2003년 2월과 비교하여 입직자수는 44천명 증가하였고, 이직자수는 27천명 증가
- 3월 입직자수의 대폭 증가는 졸업시즌을 맞아 신규학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음을 의미

<표 12> 월별 입·이직자수

(단위: 천명, %)

	입직자수	입직률	이직자수	이직률	순입직자수	초과입직률
2002. 3	216	3.6	197	3.3	19	0.3
4	175	2.9	167	2.8	8	0.1
5	151	2.5	159	2.6	-8	-0.1
6	142	2.4	149	2.5	-7	-0.1
7	160	2.7	148	2.5	12	0.2
8	146	2.4	153	2.5	-8	-0.1
9	143	2.4	139	2.3	4	0.1
10	151	2.5	153	2.5	-2	-0.02
11	150	2.5	138	2.3	12	0.2
12	125	2.1	131	2.2	-7	-0.1
2003. 1	181	2.8	172	2.7	8	0.1
2	168	2.6	180	2.8	-11	-0.2
3	212	3.3	207	3.2	5	0.1

주: 입직률=(입직자수/당월말 근로자수)×100, 이직률=(이직자수/당월말 근로자수)×100, 순입직자수=입직자수-이직자수, 초과입직률=입직률-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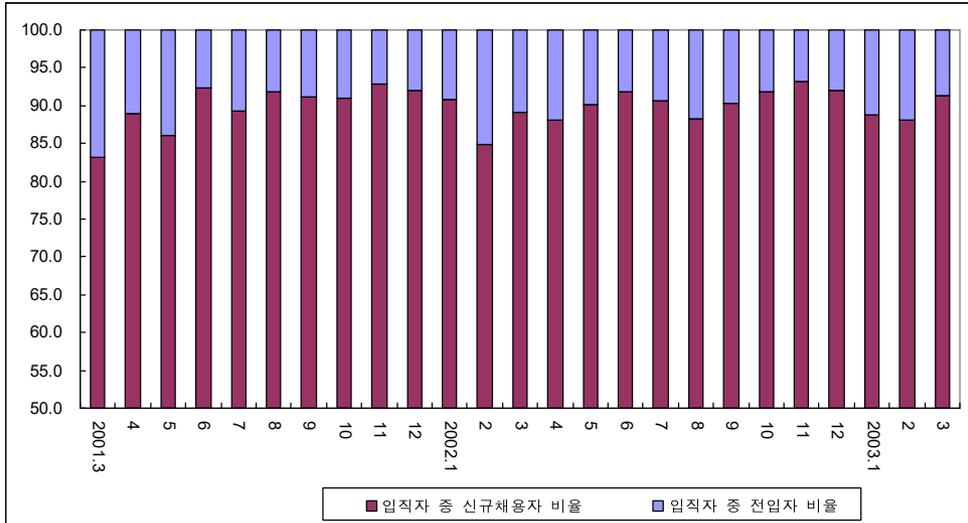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전월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은 하락, 전입자 비율은 상승

- 2003년 3월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은 91.3%로 나타나 전월(88.0%)보다 3.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입자 비율은 8.7%로 전월(12.0%)보다 3.3%포인트 하락

[그림 6]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 및 전입자 비율 추이

(단위 : %)



주 : 1) 당월 전입자수=당월 입직자수-당월 신규채용자수.

2) 전입자는 동일기업체 내에서 지점간 이동 등 다른 사업체로 이동한 자를 말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재계산.

노동동향

노사관계

윤문희*

I.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동향

◆ 2003년 5월 협약임금 상승률 6.7%를 기록

- 2003년 5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6%에 비해 소폭 상승(표 1 참조)
 -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중은 84.2%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7.7%보다 감소
 - － 반면 동결업체 및 하향 조정업체의 비중은 각각 15.5%와 0.3%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2%, 0.1%보다 증가
 -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6%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였으나 공공부문은 7.4%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2%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 진도율은 전년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
 - － 2003년 5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1,306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22.7%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26.6%에 비해 더디게 진행중
 -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23.2%로 5,575개소 중 1,29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15개소가 타결되어 8.5%의 진도율을 기록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표 1>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5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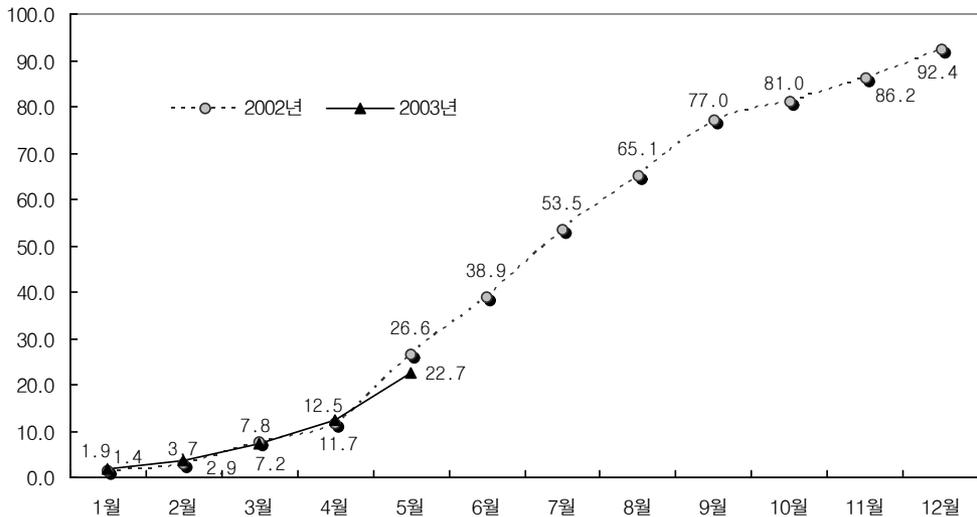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 (A)	타결업체 (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5,401)	1,306(1,435)	22.7(26.6)	6.7(6.6)
민간부문	5,575(5,236)	1,291(1,414)	23.2(27.0)	6.6(6.6)
공공부문	176(165)	15(21)	8.5(12.7)	7.4(6.2)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추이(2002, 2003년)



◆ 노사분규 발생건수, 분규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모두 크게 감소

- 2003년 6월 16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는 크게 감소(표 2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8건에 비해 크게 감소
 - 분규참가자수는 20,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7,771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 역시 147.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11.7천명에 비해 크게

감소

- 분규참가지수와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년동기에 비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대규모 장기파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
-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37건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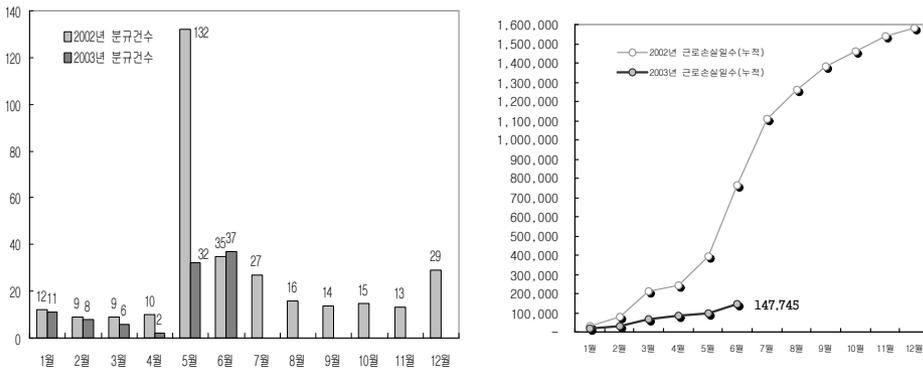
<표 2>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2001. 6. 15	2002. 6. 15	2003. 6. 15
노사분규 발생 건수	95	188<11>	96<10>
분규참가지수(명)	25,948	47,771<732>	20,229<714>
근로손실일수(천일)	269.2	611.7	147.7

주: <>안은 전년 이월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해결 부분임.
 자료: 노동부.

[그림 2]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II. 노동정책 동향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법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2003년 6월 23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고 보수·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
 -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무조건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 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신분 및 직무상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자 함.
- 법안의 주요 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를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
 - 공무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정직·정무직 공무원, 5급 이상 및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안업무 기타 그 업무의 성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을 금지
 -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무원의 보수, 근무환경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장관, 자치단체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등을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

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함.

- 교섭·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부기관에 대해 성실이행 노력의무 규정을 둔.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재직 중 5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만 종사(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양대 노총, 임금·단체협약 교섭 본격적으로 추진

- 민주노총은 6월 24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중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노조는 633곳으로 교섭가능한 노조수 대비 69.94%이며, 이 중 133개 사업장으로 21% 수준임.
 - 6월 24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수준은 기본급 기준으로 14.28%, 총액임금 기준 11.29%임. 임금교섭이 타결된 133개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8.21%, 총액임금 기준 11.13%로 나타남(단, 타결임금 인상률은 각각 기본급 기준 인상사업장과 총액임금 기준 인상사업장의 타결률을 말함).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중 총 602개소가 임금교섭에 돌입하여 전체의 67.56%에 해당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1개소로 제조업 전체 171개 사업장 가운데 76.61%가 교섭에 돌입, 비제조업의 경우는 471개소로 비제조업 전체 720개 사업장의 65.42%가 교섭에 돌입
 - 단체협약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324개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근로자 감시장치 폐지’, ‘산업안전보장’, ‘성차별 철폐 및 모성보호 보장’ 등을 요구항목으로 단체협상에 나서고 있음.

- 한편 한국노총은 2003년 임금·단체협약의 핵심적 교섭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근로조건 보전,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경영참여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
 - － 임금·단체협약의 주요·방향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 및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확보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쟁취’, ‘경영참가를 통한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 ‘경영실적과 성과에 따른 기업복지 향상과 소유참여제 활성화’를 제시

◆ 교육부문과 금융부문 등에서 노정간 갈등 심화

- 전교조는 NEIS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갈등
 - －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NEIS를 고3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2 이하에 대하여서는 12월 말까지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전교조와 합의하였으나, 6월 1일 각급 학교차원에서 NEIS, C/S, S/A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여 전교조와 갈등이 재연됨.
 - － 전교조는 NEIS에 의한 정보집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면서 NEIS 시행반대를 분명히 하고 연가투쟁·정보인권공동수업·NEIS 무력화 투쟁을 전개
 - － 전교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
- 조흥은행의 일괄매각에 반발하며 한국노총과 조흥은행노조는 파업투쟁을 전개
 - － 조흥은행노조는 6월 18일 조흥은행의 일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돌입
 -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흥은행 매각방침에 관하여 정부가 독자생존 약속을 파기하고 금융의 해외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조흥은행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 － 경총은 조흥은행의 파업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파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조흥은행노조가 논의와 협상을 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지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흥은행 파업에 대처하라고 촉구
 - － 예금보험공사·(주)신한지주회사·조흥은행이 대등 통합의 원칙,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인위적인 인력감축 중단, 파업관련 사법처리 대상자 최소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면서 파업 종료

○ 양대 노총은 6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

- 한국노총은 27개 회원조합대표자와 함께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6월 30일 총파업을 전개하여 ‘주5일제’,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주요 현안 해결을 정부에 강력 촉구기로 함.
-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련, 전국자동차노련 등의 산별조직과 부산지역본부 등에서도 총파업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을 선언
- 민주노총도 ‘경제특구법 폐기’, ‘NEIS 중단’, ‘최저임금 70만원’, ‘비정규 권리보장 쟁취’ 등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노조와 쌍용자동차노조 등의 조합원이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감.
- 한편 경영계는 이번 양대노총의 파업 투쟁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이라 판단하고,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